

# BIG 방망이 살아난다



## KIA 최희섭, 허리 부상 호전...함평서 티배팅 시작

### 룸메이트 광정철과 구슬땀...“빨리 팀에 도움 되고파”

빠른 복귀를 위한 최희섭의 '함평 24시'다. KIA 타이거즈의 '빅조이' 최희섭이 다시 방망이를 들었다. 지난달 29일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가 말소됐던 최희섭은 23일 티배팅을 시작했다. 어렵게 돌아온 그라운드인 만큼 복귀를 향한 최희섭의 열의는 뜨겁다. 최희섭은 지난주 짐을 챙겨 들고 챌린저스필드 클럽 하우스에 입소했다. 빠른 회복과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함평 24시'를 자처했다. 최희섭은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재활 훈련

을 위해 함평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차를 오래 타야 한다. 혹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올까봐 당분간 함평에서 숙소 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여름을 다잡힌 룸메이트도 생겼다. 최희섭은 “(광)정철이랑 잘 준비해서 빨리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철이도 함평으로 왔다. 밖에서 생활해봤자 시간만 아깝게 보낼 것 같고, 옆에서 많이 지적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복귀 준비 잘하

겠다”고 웃었다. 허리가 좋지 못했던 최희섭은 한화와의 경기 도중 사구를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악화됐다. 엠블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이제는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티배팅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KIA에게는 반가운 최희섭의 움직임이다. 올 시즌 KIA는 대반전을 이룬 마운드 덕분에 5할 싸움의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침묵의 4번 타자 나지완과 역시 명성에 못 미치는 이범호의 방망이에 어렵게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다. 안정된 투수력에도 롤러코스터 타격이 계속되면서 5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우려받기대반으로 시작한 2015시즌, 최희섭은 지난 1년 여의 공백에도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

3월28일 LG와의 복귀전 첫 타석에서 589일 만의 안타를 때려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611일 만에 손맛을 봤다. 4월3일 kt 원정에서는 699일 만에 한 경기 2 홈런을 신고하기도 했다.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기까지 최희섭의 42경기 타율은 0.256. 그러나 0.344의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면서 6개의 홈런과 20타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최희섭은 “벌써 엔트리에서 말소된 지 한 달이 됐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다. 예전과 달리 방망이도 가볍게 느껴진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졌다”며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느껴지니까 의욕도 더 생긴다. 준비 잘해서 중요한 때 돌아가 팀 수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별 보러 가자”

### K리그 올스타전 티켓 판매 개시

K리그의 별들의 축제 '하나은행 K리그 올스타전'의 티켓 판매가 25일 오후 2시 시작된다. 2015 올스타전의 티켓은 1·2차로 나눠 판매되며,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할인된 금액으로 1차 판매가 진행된다. 1차 판매 티켓의 가격은 ▲1등석 1만5000원 ▲2등석 1만2000원 ▲3등석(석) 8000원이다. 예매한 입장권은 경기당일 현장 매표소 창구에서 교환하면 된다. 7월 3일 시작되는 2차 판매기간에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볼비어존(2인권 5만원, 3인권 7만원)'을 비롯해 ▲1등석 2만원 ▲2등석 1만5000원 ▲서포터석 1만2000원 ▲3등석(W석) 1만2000원 ▲3등석(석) 1만원 등 좌석이 추가 판매된다. 예매는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 문의전화: 1588-7890)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이번 K리그 올스타전은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팀 최강희'와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장으로 한 '팀 슈틸리케'로 나눠 펼쳐진다.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를 구성할 22명의 선수단을 뽑는 'K리그 올스타 팬투표'는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팬투표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계속되며 1인 1일 1회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 골프男女 출격~

### 박인비, 아칸소 챔피언십 김세영과 맞대결 최경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우승 도전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1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관왕을 향해 다시 질주한다. 메이저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던 '탱크' 최경주(45·SK텔레콤)는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박인비가 2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나루 컨트리클럽(파71·6383야드)에서 열리는 아칸소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미 3승을 올린 박인비의 기록은 화려하다. 시즌 다승 부문 1위는 물론이고 상금(142만2000달러), 평균 타수(69.451타), 올해의 선수 포인트(154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랭킹에서도 리디아 고(18)를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왼쪽 장단지 통증으로 고생했던 최경주는 반전을 노린다. 최경주는 이번 시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마스터스와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다. 올 시즌 14개 대회에 출전해 4차례 컷 탈락했고 25위 안에 든 것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 25일 리버 하이랜드즈 TPC(파70·6841야드)에서 열리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은 지난해 최경주가 좋은 성적을 냈던 곳이다. 최경주는 작년 이 대회 4라운드에서 맹추격을 펼쳤지만 케빈 스트릴먼(미국)보다 1타가 뒤져 공동 2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로는 배상문(29)과 김민휘(23), 박성준(29)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박인비

## 광주 진흥고·동성고 고교야구 왕중왕전 16강

광주 진흥고가 주말리그 전라권 라이벌인 정읍 인성고를 꺾고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6전 전승으로 대회 진출권을 따낸 동성고는 화끈한 화력싸움 끝에 난적 휘문고를 제압했다. 진흥고가 23일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열린 제69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인성고와의 경기에서 7-4 재역전승을 거뒀다. 진흥고가 1회말 오정민의 발과 최상인의 2루타로 2-0을 만들었다. 3회초 볼넷과 송구 실책으로 무사 1·2루에 물린 진흥고가 양화종의 우전 안타로 1점을 내줬다. 이어 3루수 실책과 김태은의 적시타로 2-3 역전을 허용했다. 3회말 진흥고가 재역전에 성공했다. 두 개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4번 타자 김기연이 1타점 2루타를 날리며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고의사구로 1사 만루, 김재현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4-3 재역전이 됐다. 진흥고는 4·6회에도 나명선과 오정민의 2루타로 추가점을 뽑으며 7-4승을 거뒀다. 동성고는 3회엔 6점을 뽑아내며 휘문고를 10-9로 돌려세웠다. 동성고가 2회초 휘문고 정진수에게 솔로포를 허용한 뒤 이정후의 2루타로 시작된 3회에도 정진수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3실점을 했다. 3회말 1사에서 이혜성이 상대 투수의 송구실책으로 살아나간 뒤 김윤호의 3루타 때 홈을 밟으면서 동성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2사에서 최장현의 볼넷으로 1·3루, 신범수·박진수·김석환이 연속 안타를 날리는 등 휘문고 마운드를 흔들었다. 이후 양팀은 23개의 안타를 주고받는 화력전을 펼쳤다. 동성고는 9회 마지막 수비에서 동점주까지 내보냈지만 10-9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